

# 여름 다음에 바로 '겨울'...유통가 빨라진 '계절 달력'

### 광주신세계, 11월 10일까지 겨울용 침구 최대 75% 할인 프로모션 롯데백화점 광주점, 11월부터 미리 크리스마스 '원더풀 쇼타입' 장식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광주 지역 유통업체가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고객 발길 붙들기에 나선 모습이다.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 등 지역 백화점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연말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마트는 겨울 대비 난방용품 프로모션으로 동절기 매출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올 겨울 역대급 한파가 예고된다는 소식이 전해진데다,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 등으로 '헬러윈' 마케팅을 건너뛰고 곧바로 겨울 프로모션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3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광주점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점포 특성에 맞춰 내·외부를 크리스마스 장식물로 단장할 계획이다.

올해 롯데 유통가가 내세운 크리스마스 테마는 '원더풀 쇼타입'으로 예년보다 더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이고, 백화점을 시작으로 롯데 아울렛까지 순차적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선보일 계획이다.

광주신세계는 10월 중에 이미 크리스마스 장식물을 1층 광장에 설치하는 등 연말 분위기를 조성, 겨울 마케팅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특히 올 겨울 기온이 푹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년보다 이른 시기부터 겨울용 침구 할인 프로모션에 돌입했다. 불과 지난달까지도 폭염이 기승이었지만 가을이 짧아지면서 겨울용 침구 프로모션도 평년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기능성 침구 브랜드 '알레르방' 매장에서 겨울용 침구를 할인 판매하고 있다. 해당 매장에서는 헝가리와 폴란드산 거위털로 만든 '싱드로 차렵 이불' 퀸 사이즈를 원가(264만원) 대비 75% 할인된 66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마트 광주점은 오는 31일까지 핫팩·온열팩·전기요·겨울이불 등 난방 용품들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겨울철 프로모션을 이른 시기에 시작한 것은 10

월 중순 들어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고, 최근 광주 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12도를 기록하는 등 평년보다 2주가량 기온 하락 시기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보인다.

광주점은 행사기간 중 '올덴 하룻불 중형 손난로 핫팩(70g·20입)'과 '지열 목도리온열팩(30g·3입)'을 행사카드(이마트 e-상성·KB국민·신한·롯데)로 전액 결제 시 30% 할인 혜택을 적용해 각각 9030원, 5250원에 판매한다.

추운 겨울철 가정집, 학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요와 발난로 등도 정상이 대비 10~15% 할인한 특가에 선보인다. '신일 전기요 순면 차림(싱글·더블)'은 각각 7만 9900원, 8만 3900원에, '오아 스퀘어 미니 발난로'는 3만 28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겨울용 이불인 '더라이프 보글아·소프트 라셀차렵'과 온열침대 등 온열기구 전품목도 30% 할인가에 내놨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기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가을이 짧아졌고, 10월 말 '헬러윈' 프로모션이 없어지면서 겨울철 프로모션 시기가 앞당겨졌다"며 "지역민들이 올 겨울도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수능 응원·빼빼로데이 선물 준비하세요" 3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빼빼로 세트와 마카롱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대학수학능력평가(11월 14일)와 빼빼로데이(11월 11일)를 앞두고, 송정동 인기 디저트 맛집인 '망카롱'에서는 마카롱으로 구성된 '수능 마카롱 세트'와 '빼빼로 세트'를 만나볼 수 있고, 보향떡집에서는 '달기 참쌀떡'과 '빼빼로데이 가래떡'을 준비했다. 이밖에도 베비에르에서는 합격기원 '참쌀떡'과 '화과자세트'를 구매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대표작 전시

### 광주신세계, 작품 설명 등 부스 설치

광주신세계가 광주 출신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를 축하하는 부스를 설치해 지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27일 본관 1층 광장에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담은 대형 부스를 설치했다. <사진>

대형 부스는 가로 4m, 세로 2.4m 크기로, 한강

작가의 대표작품인 '소년이 온다' 표지를 모티브로 제작했다.

부스 전면에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비롯해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환' 등 대표 작품 11권을 전시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부스를 통해 한강 작가의 작품 뿐만 아니라 노벨문학상을 비롯한 각종 수상 내역과 작품세계,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 등을 상세하게 담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롯데마트·슈퍼 '뽕큐절'

### 11월 6일까지 최대 70% 할인

롯데마트와 슈퍼는 롯데쇼핑 창사 45주년을 맞아 오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롯데 그로서리 쇼핑 축제인 '뽕큐절' 1주차 행사를 진행한다.

뽕큐절은 그로서리 사업을 담당하는 롯데마트, 롯데슈퍼, MAXX 등 오프라인 채널과, 롯데마트 등 온라인 채널이 함께 진행되는 올해 최대 규모 온·오프라인 통합 행사다.

롯데마트·슈퍼는 뽕큐절을 맞아 일반적인 행사보다 품목을 2배 이상 늘리고, 최대 7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뽕큐절 1주차에는 한우데이(11월 1일)를 맞아, 1등급 한우 전품목을 행사카드(롯데·BC·KB 국민·신한·NH농협·삼성)로 결제 시 반값에 선보인다.

이를 위해 롯데마트·슈퍼는 2개월 전부터 물량을 준비, 한우 200t 가량을 확보했다. 이어 롯데마트 신선품질혁신센터에서 한우를 직접 가공해 품질의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도 끌어 올렸다. 이에 따라 '1등급 한우 등심(100g)'은 5890원에, '1등급 한우 채끝(100g)'은 8740원에 판매한다.

특히 뽕큐절 첫날인 10월 31일에는 한우데이 특가 행사를 통해 '1등급 한우 국거리·불고기(각 100g)'를 67% 할인된 1974원에 판매한다.

제철 먹거리와 즉석 조리 식품도 초저가 수준으로 내놓는다. 우선 '할 김크랩(100g)'은 50% 할인된 5995원에, '제주 감귤(3kg)' 역시 시세 대비 절반 가격인 7990원으로 올해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한다. /장윤영 기자 zzang@

## 홈플러스, 대규모 식품 할인 '메가푸드 위크'



### 11월 20일까지 한우 등 반값

홈플러스가 오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주간 대규모 식품 할인전 '홈 메가푸드 위크'를 진행한다. <사진>

이번 행사에서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경쟁력에 집중해 먹거리를 대폭 할인 판매한다. 특히 행사 기간 중 매주 금·일요일에는 '11월 역대급 메가 3일 특가'를 진행해 주요 인기 품목을 최대 반값에 만나볼 수 있다.

우선 한우데이(11월 1일)를 맞아, 오는 11월 3일까지 국내산 고기를 할인하는 '한우 한돈 메가 페스티벌'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농협안심한우 전

품목'은 7대 카드(신한·삼성·국민·롯데·농협·광주·원복)로 결제 시 10월 31일~11월 1일에는 50%, 11월 2~3일에는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산 돼지고기와 양념육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인가에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오는 3일까지 '한돈 브랜드 삼겹살·목살'을 40% 할인하고, 11월 2~3일에는 '도드라림돈 삼겹살·목살'도 할인가에 선보인다.

또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도 특가에 제공한다. 배추는 홈플러스 자체 할인 혜택과 농축산물 20% 할인쿠폰까지 적용시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들 대상으로 1통에 3992원에 판매한다. 또 '국내산 농산물 100% 포기김치(3.5kg)' 역시 1만 59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